

2016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6년 9월 22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헌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변 성 식 안정총괄팀장

6. 회의경과

<보고 제90호 -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90호 -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지난 9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 시변적 리스크의 추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경

제주체들의 금융경제 활동 결과 나타나는 경기순응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BCBS가 권고한 신용/GDP비율 이외에 여타 지표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신용/GDP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동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높은 수준에 다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신용/GDP비율이 금융위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신용/GDP비율 이외에 부문별 신용증가율, 자산가격 움직임, 금융기관의 레버리지(leverage) 변화 등의 다양한 지표를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변적 리스크의 축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등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전망함에 있어 동 시장이 시장참가자들의 심리, 거시금융·경제 상황, 부동산관련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균형적인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의 수급여건 평가시 가계의 소득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금융자산의 하나로 보아 가격변동성과 기대수익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석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국토교통부는 물론 주택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거시건전성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결정 등에도 참고할 수 있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산시장으로서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보험사의 잠재리스크와 관련하여 금리차 마진(margin) 축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 시계에서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경비절감 노력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나 금리차 마진 축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취약성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 특정 부문에 대한 편중리스크 현상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복원력 평가에서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의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취약성, 복원력, 주요이슈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금번 보고서 체계의 개편이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금통위 회의운영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관기관과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일부 위원은 유관기관과의 보고서 공유 등이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기관간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작년과 올해의 분양실적을 2017년과 2018년 준공예정물량과 비교해보면 실제 분양물량이 입주물량 예상치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동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며 관련부서의 평가는 어떠한지 물은 후, 특히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 요인을 분석할 때 오피스텔 공급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추후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앞서 언급된 부분들 등에 유의하여 분석해달라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준공예정 물량과 분양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시차를 두고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분양시점부터 가계의 자금조달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양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주택시장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준공예정 물량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고 답변한 후 앞으로 주택시장 관련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보고자료에 대해 보고서의 체계 개편, 주요 이슈의 선별, 은행 수익성 악화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 후 다만, 주택시장 분석시 거시경제와 관련된 분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고 GDP성장은 정체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주택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동 보고서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때 표현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 상황 평가와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분석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분석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토론토 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가계소비 등의 상호 연관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음. 먼저 주택시장을 수급 측면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의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필요변수 개발, 서베이 자료 활용 등을 통해 향후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의 분석 정도를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까지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금융위기는 예기치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날 소지가 크고 미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 연준 등의 많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다수 도출된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분석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이를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주택시장 분석의 정도를 계속 높여가야한다는 당부에 유념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번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시에는 트리거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내의 취약성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첨언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은 가계부채와 거시건전성 대책 추진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 I. 거시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최근 신용/GDP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계 및 기업의 신용/GDP 비율이 각각 상승 및 하락하는 상반된 추세를 보이면서 서로 상쇄하고 있기 때문임. 금년 들어 가계신용/GDP 갭의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신용 갭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음

2016.상반기중 가계부채는 소득심사가 일반주담대 수준에 못미치는 집단대출과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며(+54.2조원), 전체 규모면에서도 지난해 상반기(+46.3조원)보다 큰 폭 증가하였음

자산시장에서는 주가가 2012년 이후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외리스크에 따라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채권금리는 글로벌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연기금·보험 등 장기투자기관의 견조한 채권 수요로 인해 장기채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택시장의 경우 기존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신규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 이후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분양가도 상승

2016.상반기중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으나, 특수은행은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저하됨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권별로 일부 수익률 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16.2/4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복원력(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특수은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에 대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등 자본확충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016.2/4분기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대부분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음. 다만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2020년 예정)시 보험부채가 늘어나 자본금 적립부담이 증대될 수 있음

## II. 평가

2016년 상반기중 국내 금융시스템은 연초 중국 등 신흥국경제의 불안,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으로 금융안정지수\*가 일시 주의단계(8~22)로 진입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주의단계를 하회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15.12월 6.90 → 16.2월 11.34 → 8월 4.13(잠정)

금융시스템내의 취약성(vulnerabilities) 측면에서는 ① 경제주체들의 수익률 추구행위가 강화되면서 가계 및 금융기관 부문별로 일부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②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은 우리경제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내외 충격발생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 측면에서는 ①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양호한 반면, 일부 특수은행은 자본확충 등 복원력 제고 필요성이 있음 ②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복원력 측면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도 매우 양호한 상황. 다만 미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필요